

장제원 총선 불출마 선언...국힘 '주류 희생' 신호탄 될까

“나를 밟고 승리 이뤄달라”

김기현 일정 취소 거취 고심

권성동 등 윤핵관 행보 주목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의 거듭된 '주류 희생' 수용 요구,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층의 동반 저조 현상, 김기현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홍 조짐 등에 대한 결단 시기가 앞당겨 질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장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만큼, 후속 선언을 통해 인적 쇄신 분위기가 끓기만 안 된다는 데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운 그룹, 영남 중진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중요한 혁신위는 '주류 희생' 혁신안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장 의원과 김 대표가 우선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무엇보다 김 대표의 경우는 3·8 정당대회 때 장 의원과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꾸려 당권을 거머쥔 만큼,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앞서 사전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나왔다.

공교롭게 김 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계획했던 구룡마을 연한 나눔 봉사활동 일정을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그는 주변에 "이틀가량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대표가 거취 문제와 관련해 막판 고심에 들어갔으며,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주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후 거취를 표명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르르면 이번 주에 결단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단 시점이 내년 1월 중하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를 두고 "너무 늦은 결정", "실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결단의 방향을 두고는 수도권 협지 출마 대신 불

출마 또는 울산 내 '협지' 출마 선언에 무게를 두고 고민 중이며, 대표직 사퇴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김 대표는 주변에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광을 다 이뤘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 간판'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내세운 뒤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대표뿐 아니라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 불린 권성동·윤한홍 등 '원조 친운' 의원들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다만 강원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때 자리를 맡지 않았다가, 집권 초 여당 원내사령관을 지냈으나 조 기 사퇴한 뒤 당직을 맡지 않은 채 지역구 활동에 매진해 왔다는 점에서 장제원 의원 등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자력으로 4선 고지에 오른 이력이 있다.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권 출범 후 국회 상임위와 지역구 활동에만 전념해 왔다. 이 밖에 친운 그룹 가운데서 초선이지만 윤 대통령과 가깝고 영남이 지역구인 박성민, 박수영 의원 등의 선택도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1명 중 31명을 차지하는 3선 이상 중진의 불출마나 협지 출마 선언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현재까지는 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태경 의원이 서울 중로구 출마를 선언한 게 전부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장 의원이 중요한 시기에 의미 있게 결단을 내려준 것 같아서 많이 고마울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다음은 김 대표가 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꽤 많이 희생 혁신안 화답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尹, 네덜란드행 전용기서 참모들과 '반도체 전략회의'

네덜란드 도착 국민 일정 돌입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방문을 위해 11일(현지 시간) 네덜란드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반도체 전략회의'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참모들을 소집해 주재한 '상공(上空) 회의'는 전체적인 현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지만 조짐은 단연 반도체 협력에 맞춰졌다 고 한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절반인 1시간 가량은 반도체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국민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동맹'을 구

축하고,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까지 방문하는 만큼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ASML 본사를 찾는다. 또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블린콜'도 돌려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ASML에서 개발 중인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직접 참관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

산하는 기업이다. ASML의 장비는 주요 강대국들의 전략산업 및 방위사업의 성패와도 관련된 '전략물자'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ASML 본사 방문에는 재계 인사들이 동행해 상호 보완적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와 양국 간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국민 만찬에서도 반도체·원자력·디지털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밝힌 것

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만희 '이태원 특별법' 발의...피해자 지원 중점

"사고 원인 수사·국감서 이미 규명"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선 안 될 비극이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이미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이 규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레에서 경험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쟁이 유발되고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건 없었다"며 "이제는 참사를 정제화하고자 하는 기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가적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상처 회복과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이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피해자 심의 지원회를 뒤서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영 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은 아울러 추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희생자 추모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연합뉴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농해수위 野 단독통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들어갔다.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입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 개최를 여러 번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야에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 식용 종식법에는 찬성하나 민주당이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도 함께 심사하려 해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축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